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음 윤5월 3일) 제18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역대 최대 183개국 참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

세계 태권도인 태권성지 무주서 한마당 큰잔치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

조정원 WTF 총재 "새로운 경기규칙 적용 박진감 넘칠 것"

대회는 30일까지 이어져 이대훈·김태훈 등 거물급 선수들 대거 참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이 지난 24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T1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날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중국의 유자칭 IOC부위원장과 북한의 장웅 위원 등 IOC 위원들, 조정원 WTF 총재와 집행위원들, 리용선 ITF총재, 그리고 각국 주한 대사 등 내빈들이 함께 했으며 183개국에서 참가한 선수와 관계자들, 그리고 무주군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와 정의의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해주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WTF와 ITF가 하나되고, 남북이 하나가 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화합이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 낸 이번 대회가 9월 평양에서 열리는 I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은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역사상 처음 있는 국가수반의 참석인데다가 태권도 종주국의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개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조정원 WTF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새로운 경기규칙이



지난 24일 오후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 한국-북한 태권도시범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용돼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세계태권도연맹이 단순한 스포츠 조직을 넘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국제스포츠연맹으로서 인류사회에 가치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웅 IOC위원 등 국제태권도연맹 임원과 시범단원들을 향해 "비록 태권도 단체 이름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하나의 태권도 가족"이라며 "무주대회가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후 한국의 김태훈 선수와 영국의 비앙카 워크튼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와 캐나다 김송천 심판과 중국의 웨이 심판의 심판대표 선서가 이어졌으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연택 공동위원장과 황정수 부위원장(무주군수)의 개회 선언으로 2017 무주대회의 막이 올랐다.

WTF시범단은 100여 명이 달하는 단원들이 함께 신나는 태권댄스와 격파, 그리고 예술공연을 연상케 하는 무대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으며 남북 스

포츠 교류라는 점에서 그동안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 공연은 이날 그들 특유의 강인함과 실전적 태권도 시범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선수들은 이날 오전 경기(여-46kg, 남-54kg)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체급별 열전(토너먼트 방식)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남자 8체급, 여자 8체급, 메달 수 16개)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3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점쳐지는 이대훈 선수와 터키 Servet Tazegul 선수, 2013 멕시코대회와 2015 러시아대회에 이어 3연패에 도전하는 김태훈 선수 등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거물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매일 INDEX

3면 - 최수실, 정역 3년

12면 - 전주문화재 여행 '인기몰이'

ITF 시범단이 보여주는 '다른 듯 같은' 북한 태권도

동작 하나 하나 힘 넘쳐

북측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모습은 다소 투박했지만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그 뿌리가 같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24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역사적인 시범공연을 선보였다.

ITF 시범단의 시범은 절도 있는 동작과 파괴력에서 그 특색을 알렸다. 절도 있는 품새 동작이 이어질 때면 태권도원을 가득 메운 4500명의 관중들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시범단원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이 체육관의 적막을 깼다.

송판과 기와장 등을 동시 다발적



으로 격파하는 순서에서는 ITF 태권도의 파괴력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편, ITF 시범단은 26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송 지사 "태권도원 투자 지속된다"



지난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태권도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세계태권도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이자 송 지사는 이날 개막식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태권도원에 3,000억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졌다. 덕분에 세계태권도 대회까지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의 성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 개원 초기인 탓에 지속 방문자가 적고 기반 시설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태권도 명예의 전당을 짓고 태권도원 진입로 확보 같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회를 위해 숙박, 음식, 교통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선수들과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 "남북 평화, 강한 안보가 기본"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은 25일 "남북한 평화는 강한 안보가 기본이 돼야하고 힘과 갈등의 정치적 이념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6·25 67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굳건한 안보태세 강화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처럼 우선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협의의 과정을 주도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주 태권도선수권대회가 평화와 화합이라는 성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군산시 인재육성 장학금 2억 7천만원 기탁

처음처럼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언제나 전북사랑!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